

초우량 건설기업 동부건설

산업에서 아름다운 건축까지

동부건설

동부 센트레빌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으로 아파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센트레빌.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동부건설은 언제나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에디터 이은숙

동부그룹의 모체인 동부건설은 1969년에 창립돼 경제개발 초기 극도로 열악했던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과 토목공사에서 시작해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건설 시장에 선두주자로 진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부고속철도, 청담대교, 광명역사, 세종문화회관 개보수,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등 주요 국가 기간기업 건설에 기여해왔으며 토목·건축·플랜트 사업을 기반으로 주택 사업, 민자유치 SOC,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 문화의 새로운 척도, 동부 센트레빌 센트레빌은 중심(Center)과 100년을 뜻하는 'Century', 그리고 단지 개념인 'Ville'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센트레빌은 화려한 경관 조명과 파격적인 아파트 외관,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



해 고급스럽고 모던한 세련됨을 마음껏 뽐낸 아파트이며 유비쿼터스는 물론 자연과 집이 하나 되는 친환경 웰빙라이프 아파트를 만들어 대한민국 신개념 주거 문화를 창조하려는 동부건설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다.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아름답게 한다는 브랜드 정신을 바탕으로 센트레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조형 예술품을 짓는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에서 과감히 벗어나 아파트를 하나의 조형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센트레빌. 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동부건설의 의지가 만들어낸 명품 브랜드로 전국 곳곳에 자리한 센트레빌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닌 채 어느 아파트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도입한 푸른 유리의 커튼 월(Curtain Wall: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지 않고 비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깥벽)은 한강 빛과 어우러져 자연 친화적인

동부건설 황무성 대표이사

'수주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의 현업화'를 통한 초우량 건설회사로의 도약

“동부건설은 올 한 해 외부적으로는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한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의 현업화를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동부건설 황무성 대표이사는 올해의 포부를 제시한다. 지난해 공공 수주 1조원을 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공공 공사에서의 턴키 수주(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에서 관여하는 수주 방식)와 대안 입찰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이 분야에서 더욱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적 능력과 제안형 및 투자형 사업역량을 보장하고 TK, 적격, SOC 등 다양한 발주 형태로 수주 영업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 역시 경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단순 도급 공사를 벗어나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PF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등을 선별적으로 수주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및 수도권 사업의 확장을 통해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해로 삼을 예정입니다.”

황무성 대표이사의 말대로 최고급 톱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센트레빌은 완벽한 시공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브랜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센트레빌' 브랜드 파워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 부문은 현재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룹사 부지 개발과 관리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개발역량을 강화

해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 혁신이 키워드

동부건설은 올해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초우량 건설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우수한 인재와 탁월한 시스템, 진취적인 기업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영혁신'으로 시스템 경영

과 성과주의 경영을 가속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본사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경영혁신을 올해는 현업·현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또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과 원가경쟁력 제고를 조기에 가시화해 '원가절감이 곧 경쟁력'임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현장관리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 부문별 최고 경영자에게 권한 부여의 폭을 넓히고, 최근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윤리경영 실천을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고객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동부건설은 이 같은 올 한 해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수주 2조200억원, 매출 1조2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와 도회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커튼 월은 방음과 단열 효과까지 뛰어나 실용성 또한 높다.

동부건설은 지난 2002년, 더 이상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거 부문 본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시대를 앞서나가는 미래형 주거 공간-대치 센트레빌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에서는 미래의 아파트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공간. 대치 센트레빌은 버튼 하나로 집 안의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편리성을 최대화한 최첨단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차량 귀가시 해당 세대로 자동 통보되며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량도 중앙관리실의 통합 모니터를 통해 자동 점검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해냈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한 내실을 추구한다

동부건설은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입증된 국내 유수의 초우량 건설기업으로 외향 지향적인 사업보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기업이다. 매년 전체 거래소 상장사 중 최고의 배당률을 기록하는 등 주주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2004년 말에 구축이 완료된 ERP 시스템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장마다 공사대기·재시공 프로그램 도입과 통합공사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고효율 경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건설업계 최고의 당기 순이익률을 이루며 이에 따른 모든 경영지수의 호전으로 수주 분야에서 호조를 보여 지난해 2005년 공공 수주 1조원을 달성해 건설업계 사상 여섯 번째로 '1조클럽'에 가입했다. ■